The Korca Daily Acres. Scoul, Korea, Wednesday, July 28th, 1926.

A CHINESE RULER RUNS AWAY By Rayra Raphaelson

For four years this prince participated in the decident pleasures of the dying regime. He was shrewd and politie, as well as gorgecus in his way of living, so that when the smash came and the Manchus overthrew the Mings in 1664 he semehow saved his skin and rose to efficial position under the new rulers. But he participated in one court intrigue too many and wes finally forced to flee Reking. The averging party in power me zed his palace and stole his numerous screetires to replenish the the imperial harems. From that day until the very recent

year of 1918 the path of that astute-but enct quite astute enc gh-Ming prince memained a ruined inc caure. Its trees grew, tut its marbled walks cracked, its lactheaed pagodas tumbled into the vines, and the foundations of its rezed tuildings, surrounding the innumerable courts, became one with the dust. -So it was-a rain-when in 1918 Tuan

Shi-jui came to Peking to become premier. Tuan looked about for site men which to crect a home suitable to his wealth and new official station. He found the site of that ruined Ming palace, with his broken walks and towering trees, and chose it for his own. There built one of the most spacious of all the great houses in Peking.

院四

8年1日本

午後三時旦

歡迎蹴球己

中央基督教青年會◆

朝鮮日報社

徽文運動場에什

雨天順延

逃捕拘禁望不正商

早靴窃取하

I

정해도인물군인물면 남친리(黄 집주인인 고무화라가 하다가는 동업자인인물관 커부면 아니하였는데 고무화장사이것가 아 전환 라 라 보 라 한 사는 말 하나 하다 가 마 함 나 하다 가 마 함 바 분 한 다 하다 주인의 공전하고 모 바 하다 가 마 함 바 분 한 다 하다 주인의 공전하고 모 바 전상이가 지 나 이 사람이 된 의 교육이 있다 모 한 사람이 되는 이 지 그는 함 하다 그는 함 이 지 그는 함이 이 지 그는 하지 그는 하

三一堂에

지수에 가는 등을러는 한복교에서 등에 가는 경험에 가서 목메인발로 기관하다 이 제 기관하다 이 제 기관하다 이 제 기관하다 한복교에서 무현 한복교에서는 경찰에 교관하다 사람이로 무현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무한 하소 역원을하고 이 기가 함께 가는 경찰에 되고하다 사람이 되는 자신 무현 한복교에서 무현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되고하다 사람이 무슨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되고하다 사람이 무슨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되고하다 사람이 무슨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되고하다 사람들이 함께 무현 이 기가 함께 가는 경찰에 무슨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무현 이 등을 함께 되고 함께 가를 하는 등심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무현 한국교에 무현 한국교에 무현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무현 한국교에서는 경찰에 무현 한국교에 무

상해(上海)에 거류하는 유지동 이난륙을(六月)오동에다한감주 포동의 발기로지난산륙일 오후 씨의 보고와 안찬이시의민을 기 발시에법계산일당(法界三一堂) 맛次다더라(상해) 에서 민성히를입고 보통에서일 日子外生立外かなかる外のなる 演說會 자난이십일일 오후 의사장에 충주면교환당(忠州面校規制)에거 주변교환당(忠州面校規制)에거 당 남동(衛任律)(일)과 박목이(사사) 가기 강복당(金卜得)(점)

文湍警察 り禁止 界的幸運의書翰會 일종미신에불파하다고 米國某大尉健在乎 店舗顚覆。三 高駿澤の 巡査殺害犯ら 店主의生命危篤

姜朴爭訟의判决

사백원이

一般注目中

형무소재감중의관비자를 八〇三審問曾回 아니다

명 성해에서 대포되면 신의주보호 하야 고준택인 하등의관계기업 등 명 성되면은 병인의유단원증 고준 고 그진병인의 따로잇따함이로 경을 맥(內寅藥原團員高駿澤 으상해 예심에서는 그중인이로 김명은 백건 취료를 다마치고 예심으로넘어 있습으로 그사람을 불러심문한 가가하는 이미보도 한바이니와 후 5 곳공관으로 넘기리라더라 배 친기 김명우 특종살한사건에 대 후 5 곳공관으로 넘기리라더라 배 전기 김명우 특종살한사건에 대

人妻通姦하い

어커의 대소동들하얏는데 사정이 이러의 비스 보는 한 기계 등을 가게 되었다. 이 아니는 아조예요 기계 등을 하였다고 소 이 아 등을 하셨다고 소 이 이 나 이 도 조금이 만장살라고 소 이 아도에 이 만장살라고 소 이 아도 조금이 만장살라고 소 이 아도에 이 만장살라고 소 이 아도에 이 만장살라고 소 이 아도소리 이 만장살라고 사장 이 아도소리 이 만장살라지다.